

문화광장



김준기 미술평론가

다시보자, 문화예술

지금 하나의 유행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문화예술이라는 유행이. 문화도 모르고 예술도 모르는 얼치기 민권협치 권력들, 즉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행정관료들과 교육커머설리즘의 늪에 빠진 대학교수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문화를 섭렵하는 언론인들, 문화라는 외피에 기대어 예술을 파는 문화산업 종사자들과 예술인들은 이 유행을 살찌우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었다.

이 먹고사니즘에 귀속한다고는 하지만, 문화의 전반과 예술의 궁극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종속하는 상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좇아가는 현실이 새삼 위험천만해 보인다. 허무이들의 일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 까닭이 있다. 바로 '문화예술'이라는 개념이 부동의 표상으로 굳어져 사회 전반에 안착하면서 무개념 문화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 개념에서 파생한 제도들이 긴 그림자를 남길 것이라는 예후가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문화도 예술도 모두 뒤섞여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다.

문화와 예술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다. 카테고리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레벨의 차이가 있다. 포함관계로 말하자면, 문화는 예술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은 문화의 여러 카테고리들 중의 하나로서 문화의 하위개념이다.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라는 인류학적 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과학' 등을 포괄하는 것이 문화이다.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전국에 편재한 국립, 시립, 도립의 문화예술회관을 보라. 도대체 무엇을 향한 문화이며 예술인가? 제 역할에 맞게 국립극장, 시립극장, 도립극장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화예술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 텅 빈 강경 같이 실속 없는 허세일 수 있다. 그것은 '문화-예술'이라는 등식으로 양자를 하나로 묶어서 문화의 광활한 영역을 축소하고 예술의 가치를 폄하하는 절충주의 개념이다. 그것은 문화예술이라는 말 하나로 문화는 문화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각각 갖춰야 할 개념과 제도의 틀을 몽땅그려 넣는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미성숙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열린마당

제주도 이장연합회 설치가 필요하다



고성봉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사무총장

서귀포시이장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사무행정과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며칠 후면 1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며, 그동안 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던 부분을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설치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국, 시·도 단위에서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연합조직체가 구성돼 활동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주에서도 이장들 사이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도정에 반영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기구로서도 단위의 이장연합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뉴스-in

중국인 유학생과 간담... 편견 불식 약속

원 지사, 애로사항 청취 정은수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1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양복 6차선의 지상차도를 개설하겠다는 도의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장중심 진단과 처방 제시

○...제주시가 17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 본부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장중심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사설

교원 임용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두 차례나 뒤바뀐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최종 합격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뤄지는 교원 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원 임용시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최종 합격자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도교육청은 처음 합격자가 바뀌기 전까지 실기평가 점수를 빼뜨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응시자들이 체육교과와 실기평가 점수가 빠진 것 같으며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누락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도의회 연속 우수조례 수상 '쾌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전국 최초로 시·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개인·단체부문 수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하면서 차별화된 도의회 조례들이 전국 무대에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해 우수조례시상식에서도 개인 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에 이어 단체부문 우수상까지 휩쓸 바 있습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장준호(삼성전자LED사업팀) 아버지 인동장공 경훈(향년 82세)께서 서기 2020년 2월 16일 오후 9시40분 별세 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제1분향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제주초특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